

## #8. 엔비디아의 국내 'AI R&D 센터' 설립, 플랫폼 생태계 내 우리 기업의 IP 확보 전략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YNP입니다.

AI 생태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며 글로벌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한 엔비디아(NVIDIA)가 한국 내 대규모 'AI 기술 R&D 센터'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는 "한국은 AI와 로봇공학 전문성이 뛰어난 최적의 R&D 투자처"라며 이미 센터 설립을 위한 인력 채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세대 핵심 투자 분야로 '로보틱스(Robotics)'를 꼽으며, 한국의 제조업·메카트로닉스 기반이 로봇 산업을 지원할 완벽한 로컬 생태계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국내 AI 및 로봇 기업들에게 글로벌 무대로 도약할 기회이지만, 현실적으로 대다수 기업은 엔비디아 인프라(CUDA 등)를 활용 및 응용하는 형태로 생태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 "플랫폼 기술을 썼으니, 우리가 만든 응용 기술도 결국 종속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집니다.

거인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도 우리 기업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할 방법은 열려 있습니다. 엔비디아 생태계 속에서 기술적 종속성을 줄이고, 독자적인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IP 전략을 제시합니다.

### 엔비디아 인프라 활용 기업이 빠지기 쉬운 IP 함정

엔비디아가 배포한 개발 키트(SDK)나 가속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개발할 때, 기업 관계자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특허청구범위의 단일 주체 특정'입니다.

- **엔비디아의 구성요소 구분:** 우리 기업의 인공지능 솔루션을 특허로 권리화할 때, 청구항에 엔비디아의 특정 하드웨어 구조나 CUDA 고유의 프로세스를 필수 구성요소로 함께 묶어 기술하는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 **권리 행사 저해 요인:**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단일 주체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을 실시해야만 특허 침해를 인정**합니다. 만약 청구항에 '엔비디아 시스템의 동작'과 '우리 기업의 동작'이 혼재되어 있다면, 향후 경쟁사가 우리 기술을 카피하더라도 침해 입증에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오직 우리 기업의 소프트웨어/시스템'이 단독으로 제어하고 구동하는 기능만을 추출하여 권리화해야 합니다.

## 엔비디아 생태계 내 독자적 기술 자립을 위한 IP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엔비디아가 될 수 없다면, 엔비디아의 생태계 안에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의 응용 영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 전략 1: 범용 인프라를 특정 산업에 맞추는 도메인 특화 데이터 흐름 특허

엔비디아는 어디에나 쓰일 수 있는 범용 AI 인프라를 제공할 뿐, 특정 산업의 미세한 프로세스까지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국내 기업이 강점을 가진 유망 산업(예: K-뷰티 맞춤형 진단, 특정 제조 공정 결함 검출 등)에 맞춰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모델의 입출력을 최적화하는 '고유의 비즈니스 로직 및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특허화할 수 있습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이라도 현장의 전문 데이터 흐름까지 독점하기는 어렵습니다.

- 전략 2: 플랫폼 종속성을 상쇄하는 호환성 및 가속 미들웨어 특허

현재는 엔비디아의 칩셋 위에서 개발을 진행하더라도, 향후 AMD, 인텔 또는 국산 NPU 등으로 하드웨어를 전환할 수 있는 '상위 레이어의 호환 및 컴파일러 기술'을 독립적인 특허로 선점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툴을 쓰되 그 위에서 동작하는 우리 기술이 타사 인프라와도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은, 향후 거대 플랫폼 기업과의 단가 협상이나 기술 독립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 전략 3: 인프라 외부 환경을 지배하는 엣지(Edge) 단말 경량화 및 보안 특허

엔비디아 R&D 센터의 지원을 받아 온디바이스 AI(On-Device AI) 솔루션을 응용 개발할 때, 한정된 단말 자원 내에서 연산 속도를 극대화하는 경량화 알고리즘이나 클라우드 통신 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을 독자 특허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형 서버 인프라 밖, 즉 사용자 접점(Edge)에서 일어나는 고유의 응용 기술은 우리 기업이 독자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 맺음말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AI 인프라는 우리 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훌륭한 발판입니다. 다만, 플랫폼 위에서 구현된 응용 기술을 우리만의 고유한 자산으로 정착시키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유지하거나 기업 고유의 가치를 온전하게 평가받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거인의 판 위에서 기술을 다지되, '우리 기업 단독 실시'가 가능한 기술에 대해서는 **촘촘한 특허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것이 글로벌 생태계와 상생하면서도 독자적인 자립 기반을 다지는 길입니다.

특허법인 YNP 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인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천 기술에 대한 코어 IP 발굴부터 글로벌 포트폴리오 다변화까지 기업별 다각적 특허 전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AI 및 로봇 공학 분야에서 고도화된 특허 장벽을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업은 특허법인 YNP 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특허법인 YNP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6 YNP IP